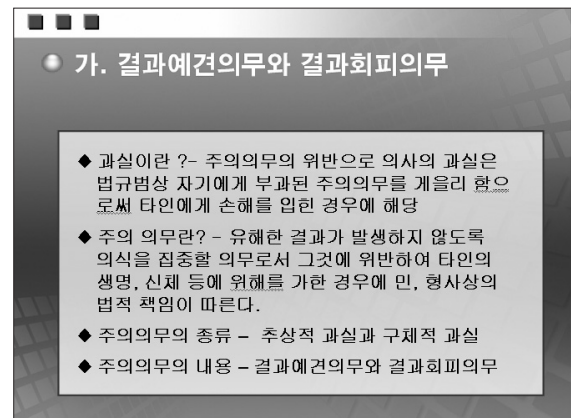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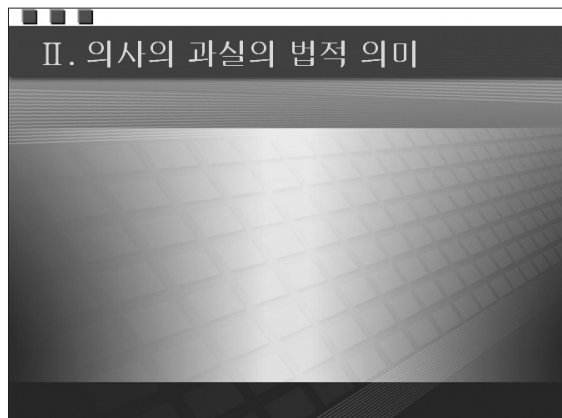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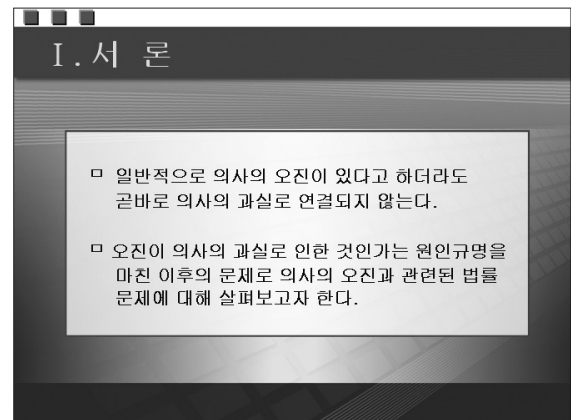


11:30 - 12:00

의사의 오진과 관련된 법률문제

대외법률사무소

전 현 희



● 나. 최선의 주의의무

▣ 대법원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하는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는 의료인으로서 (의료법 제2조 제2항),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위와 같은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의사에게 최선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Ⅲ. 의사의 오진과 법적 책임

● 가. 오진이 있다고 무조건 과실은 아니다.

▣ 일반적으로 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해서 바로 의사의 과실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오진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증에 있어야 한다.

▣ 오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치료효과가 있었거나, 환자에게 무해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오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진으로 인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오진이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야만 한다.

● 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오진

- ① 의사로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에 속하는 행위
- ② 보통 의사로서 피하기 어려운 오진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 ③ 진료방법이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경우 또는 환자에게 무해한 경우

** 판례를 통해 본 의사의 오진에 대한 과실 책임 부정에 대한 실제사례

사례 1

환자가 복부에 계란크기의 종양이 생겨 복통을 호소하자 특별한 병리검사 없이 촉진으로 진료하여 개복수술을 하였는데, 그 결과 장부위의 종양은 두약에 의해 치료가 가능한 대장결핵성 임파선염 질환으로 판명된 경우에 시험적 개복수술이 하나의 검사적 수단으로 확진 방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무슨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78다1184 판결)

사례 2
의사가 X-ray 영상에 나타난 우전 두골선상골절, 전구와기저부 목잡골절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진하여 18일간 치료하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긴지 6개월 뒤에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86다카2780 판결)

사례 3
외상성 장파열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을 바로 진단하지 못하고 급성 위확장 및 마비성 장폐색증으로 오진하여 대증요법을 시행하면서 확진을 위해 외과적 진찰을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로서 의 의료과실 부정(82도 1882 판결)

사례 4
위암환자를 담석증으로 오진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환자가 이후 사망한 경우 오진은 과실이나 오진으로 인한 치료기회상실이 있거나 오진과 환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90가합42898 판결)

사례 5
소파수술을 받은 환자가 8월 후에 다시 복통을 호소하여 병원에 내원하자, 그 복통이 소파수술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판단하고 2차 수술을 시행한 경우 자궁외 임신을 오진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의사의 통상적인 진료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의 의료과실 부정(85도2133 판결)

● **다. 과실이 인정되는 오진**

**** 판례를 통해 본 의사의 오진에 대한 과실 책임 인정에 대한 실제사례**

● **(1) 유방암 오진**

사례 1
유방종괴를 원인으로 기왕에 내원하였던 환자가 약 10개월이 경과한 뒤 같은 병원을 내원하였다면 의사로서는 위 환자에게 유방암 확진을 위한 검사방법을 설명하고 진료가목부의 유방에 관한 병력·증상에 근거하여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등으로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해태하여 환자가 좀더 정확한 유방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이는 환자의 유방암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한 사례 (2001가합11723)

사례 2
의사가 거드랑이 종괴를 원인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종괴의 확진을 위해 세포흡입검사를 시행하여 전이성 암으로 진단하고, 초기 병소가 유방에 있다고 판단하여 유방에 대한 모든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명확한 병소를 찾지 못하여 '잠복성유방암'으로 진단하여 유방을 절제하고 림프절도 제거하였는데 수술 후 유방조직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독되어 의사의 진단상의 과실과 설명의무위반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2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한 사례 (2003가합3211)

(2) 방사선 관련 오진

사례 1

자전거를 타다 다친 환자에 대해 신경 외과적 진찰과 두개골 X-ray 촬영을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 15cm가량의 선상골절을 발견하지 못해 뇌실질내출혈을 예상하지 못하여 뇌부종과 뇌좌상 치료를 받던 중 환자가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한 경우 (88다카26246 판결)

사례 2

기침과 가래 및 피곤을 느껴 내원한 환자에게 의사는 흉부 X-선 촬영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우측 상엽에 3cm 정도의 결절과 좌측 늑막의 비후 및 좌측 9번째 늑골 중부에 결손이 확인되었고, 객담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타나자 X-선 필름 상에 나타난 우측 상폐 중앙부위의 반점상 음영과 석회화 음영 및 좌측 폐 하부에 나타난 늑막 유착소견을 폐결핵으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하였지만, 몇 개월 뒤 환자는 폐암으로 판명되어 사망함. 의사는 X-선 필름에 나타난 결절 등의 증상에 대해 다른 질환을 의심하여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5개월 동안 환자의 증상에 호전이 없었음에도 항결핵제의 투약치료만을 계속하여 폐암의 병기가 진행되어 위 환자로서 하여금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잘못이 있다. (97가합75156)

사례 3

소외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맥시와 충돌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병원에서 두부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한 피고와 소외인의 좌측 전두부에 있는 고밀도 음영상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판정한 사실을 그대로 믿은 소외 의사가 단순한 감기증상으로 판단하여 그에 대응한 치료만 시행한 결과 소외인은 만성뇌경막하출혈로 사망함. 원심에서는 이를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 시 단층 촬영 상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피고의 과실을 인정 (94다24183)

사례 4

점심식사 후 갑자기 가슴부위와 등 부위에 통증을 느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활력징후가 비교적 정상이고 심전도, 흉부 X-선 검사, 혈액검사를 시행한 검사 결과에도 흉부 X-선상에 종괴가 관찰되는 것 외에 심근경색이나 심근허혈 등의 심장질환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바하여 단순히 체한 것으로 보고 소화가 질환의 일종인 급성위장관염으로 진단하였다. 그러나 필름 상 대동맥 부위에 대동맥 박리가 의심되는 교열선이 일반인이라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뚜렷이 관찰되는데도 응급실 의사가 이를 간과하여 추가검사를 하지 않아 이후 상행대동맥박리로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상행대동맥박리 증이 악화되어 대동맥이 파열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라 하면서 피고는 환자가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책임 인정 (2003가합25839)

(3) 기타 관련 오진

사례 1

쌍태아를 임신하여 체중 1.1kg의 여아와 1kg의 남아를 분만한 산모에게 신생하는 조산아, 쌍태아, 저체중이라서 산소 호흡기나 보육기 등에 의한 치료를 하더라도 생존할 가능성이 없고 곧 사망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신생아를 라면상자에 넣어 보호자에게 집으로 데려가라고 독촉하였는데, 이후 집에서 남아는 사망하고 여아는 아직 사망하지 않아 여아를 타병원 보육기에 넣어 치료한 결과 생존한 경우(94다29218 판결)

사례 2

뇌종양을 단순한 인두염과 신경성위염으로 오진한 경우 위자료청구 인정한 사례(88가합44525 판결)

사례 3

기왕의 증세와 다른 새로운 증상을 호소한 환자에게 정밀검사와 진단 없이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을 투여하여 약품쇼크로 사망한 경우(97다1815 판결)

사례 4

갑상선 비대증이나 심장병 환자에 대해서는 편도선 절제수술이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전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편도선 수술을 시행하여 수술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 (85도1789 판결)

사례 5

산부인과 수련의가 초음파 검사 등의 정밀검사 없이 사진과 촉진만으로 환자의 병증이 자궁외 임신인지, 자궁근종인지 판별하지 않은 채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여 자궁적출을 한 경우(92도2345 판결)

IV. 검진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검토

가. 방사선 판독상의 오진 - 책임부정

(1) 사건의 개요

의사 갑은 머리에 상처를 입고 내원한 환자 을을 진찰하면서 X-레이 사진상에 나타나 있는 두부 목감골절을 발견하지 못하고 전두부 좌측 등의 상처만 있는 것으로 오진하였다. 그리하여 의사 갑은 좌측 등의 상처에 대한 치료로서만 항생제와 소염제 등을 투여하다가 이후 비강내 뇌척수액 누출증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여 을을 종합병원으로 전원 시켰다. 환자는 종합병원에서 고식적 치료를 받은 약 2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뇌막염이 병발하여 11차 레나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뇌막염, 뇌수도증, 경각막하 농양 등의 합병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사례에서 X-레이 상에 나타난 환자의 두부골절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의사의 과실이 있는 오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의사 갑이 환자 을을 치료하는 동안 계속 항생제 투여 등 실제증상인 뇌기저부 복잡골절 등에 대한 현대의학적 상 쿨할 수 있는 조치를 결과적으로 하였고, 뇌척수액 누출증이 의심되는 즉시 합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 하였고, 환자의 직접 사인인 뇌막염 등이 다른 병원에 전원한지 20여 일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 하였기 때문에 의사 갑의 오진과 을의 사망과는 법률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오진의 과실은 인정되어도 오진과 환자의 사망과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의사 갑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나. 개복 수술 후 종양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책임부정

(1) 사건의 개요

환자 갑은 복부에 게란크기 모양의 종양이 생겨 복통을 호소하며 의사 을에게 치료를 요청하였다. 의사 을은 환자에게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촉진에 의해 종양을 감지한 후 바로 개복수술을 시행하였다. 개복수술을 한 결과 장 부위에 있던 종양은 개복수술이 필요 없는 투악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대장결핵성 임파선염 (복강내 결핵) 질환으로 판명되었고, 이에 환자 갑은 의사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의사 을이 환자 갑에 대해 세밀한 검사를 하지 않고 청진, 촉진, 흉곽촬영 만으로 환자 갑의 질환을 위종양이나 위계양으로 착단하여 개복수술을 한 것은 경솔한 처사라고 할 것이나 의사 을의 개복수술에 의하여 환자의 질환이 확진하기 어려운 대장결핵성 임파선염으로 판명된 이상 위 개복수술로 인해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의사 을의 항변을 받아들여 환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다. 폐암 오진 - 책임인정

(1) 사건의 개요

흉부 X-ray 검사상 폐암의 가능성을 시사 하는 소견이 있었는데, 병원측의 과실로 검사결과를 누락시켜 환자에게 이를 알리지 못했고 이후 2년 뒤에 환자가 사망을 하여 그 유가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2) 법원의 판단

이 사례의 경우에는 법원은 일차적으로 의사의 오진이 과실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오진과 환자의 손해(사망)와의 인과관계를 검토하였을 때 암 치료비와 암 치료로 인한 일실소득의 손해 등은 오진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가 아닌 환자의 기왕증인 암과 관련된 치료비이므로 오진과 인과관계가 없어 병원측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의사의 과실에서 기인한 오진이 환자의 치료기회 상실, 신변정리기회의 박탈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부분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 천만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V. 최근 의료 기사

가. 20대 회사원, 병원 오진으로 가정파탄

인천의 한 병원이 바이러스 감염을 앓는 20대 남자를 골수암으로 오진, 항암치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원 조씨는 지난해 10월 온몸에 열이 나는 증세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A병원에서 조직검사 등 정밀진단 결과 악성 림프종(골수암)이란 판정을 받고, 항암화학요법 동의서와 수술, 검사, 마취 청약서를 쓰고 항암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항암치료를 받은 조씨는 S보험회사에 가입한 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진단서를 제출한 뒤, 같은 해 11월 이 병원의 재차 조직검사와 S의료원의 검사 결과, 골수암이 아닌 바이러스 감염으로 판명됐다. 조씨는 "당시 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악성 림프종이나 급성 백혈병 소지가 많다면 응급 항암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존율이 20%도 안 된다고 해 항암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조씨는 당시 다니던 D회사를 퇴사했고, 결혼 2년 만에 부인마저 가출한데다 치료비(1천만 원)로 빚을 지는 등 가정 파탄에 이르렀다. 조씨는 "항암치료로 머리가 다 빠지고 빛더미에 올라앉았지만 현재까지 병원측으로부터 오진에 따른 보상은 물론, 사과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병원 관계자는 "당시 조씨의 상태가 조직검사 결과를 보고 치료방법을 결정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최선의 방법을 통해 치료에 성공한 만큼 오진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나. 종합검진 설명 불충분, 위자료 1천만원

종합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왔더라도 관련 질병에 걸렸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피검진자에게 그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임모(54)씨가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의료진의 말만 믿고 정밀검진을 받지 않아 폐암을 조기 발견하지 못했다"며 종합검진 시행 의료기관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제6차 대한유방검진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

